

문학 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박 선 희
(고려대)

1. 서론

자유간접화법(Discours Indirect Libre, 이하 DIL)¹⁾은 세계 많은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다. 플루더르니크(Fludernik 1993: 99 ; 박선희 2011b: 56에서 재인용)는 DIL이 로망스어군, 게르만어군, 슬라브어군, 리투아니아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핀란드어, 터키어, 힌두어, 요르바어 등에서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이 말은 우리가 DIL의 존재나

* 본 논문에는 한국번역학회 2015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1) 영어로는 보통 'Free Indirect Discourse'라고 불리는 '자유간접화법'은 '자유간접문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더 많이 알려진 '자유간접화법(D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간접화법(Discours Indirect, 이하 DI), 직접화법(Discours Direct, 이하 DD), 자유간접화법(DIL), 자유직접화법(Discours Direct Libre, 이하 DDL)의 언어적 특성과 문학 문체로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박선희(2011a: 132-33)와 박선희(2011b: 57-58)에서 참고 가능하다.

그 언어적 형식을 알지 못한 것일 뿐, 지금까지 한국 소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DIL을 읽어온 것이며, 외국어와 한국어를 출발어나 도착어로 번역하는 문학 번역자들이 번역 작업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DIL은 특히 문학 텍스트에서 그 문체적 힘을 발휘하는 기술 도구이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 ‘지각’을 전달하는 구조로 기술되는 문학 텍스트에서 DIL은 서술자가 그들의 ‘말’이나 ‘생각’, ‘지각’ 등을, 예를 들어, 한국어라면 직접 인용부호(“ ”)나 간접 인용부호(~라고 (말/생각)했다)와 같은, 인용표지 없이 기술하는 것이다. 인용표지 없이 재현되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명확하게 경계 지어지지 않은 채 한 구문 안에 동시에 섞여 나타나는 모호한 다음성적인 성격을 지니며, 인용표지가 없다보니 서술문과 동일한 형식이 되므로 맥락과 DIL 구문 내의 언어적 지표에 의존하여 그 존재를 감지해야 된다. 이러한 서술문과의 형식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번역자가 원문에서 DIL을 서술과 구분하여 읽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번역자가 해당 구문이 서술이 아닌 DIL이라는 것을 감지했다라고 그것을 번역문에서도 서술이 아닌 DIL로 읽히도록 재현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DIL의 번역은 문학 텍스트 내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분리해서 번역할 것인가, 둘 중 한 사람의 단일한 음성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이질적인 두 타자의 음성을 구분 없이 한꺼번에 혼합할 것인지에 대한 문체의 번역과 관련되므로 문학 번역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미 박선희(2011b)에서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프랑스어 DIL과 그것의 한국어 번역문에 대한 비교가 있었고, 이 연구에서 원문의 DIL이 한국어 번역에서 DI나 DD로 번역될 때 생기는 문체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DIL을 DI나 DD와 비교하는 것으로 그쳤고, DDL로의 번역이나 DIL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서술과 DIL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선희(2011b)를 기반으로 그 연구 범위를 더 확장하여 DIL이 나머지 세 화법으로 번역된 경우뿐만 아니라 서술로 번역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문체적 상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소설인 에밀 졸라(Émile Zola)의 『목로주점 *L'Assommoir*』에 나타난 DIL 예문들과 그 한국어 번역을 비교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DIL의 언어적 특성과 번역 문제는 과거 시점으로 기

술된 3인칭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말’이 DIL로 재현된 경우로 제한되어 검토되었다.

2. 문학텍스트 안의 자유간접화법

2.1.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경우

고대 프랑스어에서부터 화자와 전달자의 담화가 경계 없이 섞이는 음성 혼합 현상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런 언어 현상이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스위스 언어학자 샤를 바이(Charles Bally)가 프랑스어에 나타나는 이런 언어 현상에 ‘자유간접문체(Style Indirect Libre)’라는 고유한 이름을 붙이면서 부터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DIL을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특성이 혼합된 이 둘의 중간 형태로 인식하던 것이 1980년대 오스왈드 뒤크로(Oswald Ducrot)에 이르러서는 화자와 전달자의 음성 혼합을 다루는 다음성(polyphony)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문학에서는 고대와 중세 때부터 존재했던 이런 음성 혼합적 특성이 작가에 의해서 의식적인 문체 도구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라 폰텐느(La Fontaine)가 시작이며, 19세기 사실주의 시기의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의 의해서 이 문체의 사용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플로베르 이후에 등장한 에밀 졸라의 경우, 너무 많이 사용한 탓에 DIL을 남용하였다고 비판받기도 하였다(Lips 1926: 137-48).

『목로주점』에서도 졸라의 DIL은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집단적 구문을 이루어 나타나는 데 DIL을 남용하였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졸라가 이 문체를 자주 사용한 것은 고전적인 문학 규범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19세기 노동자들의 거칠고 비속한 언어를 담아내기에 적당한 기술 도구였기 때문이다(Niesse 1974: 127; Maingueneau 2010: 196).

그러면 졸라가 이 소설에서 사용한 DIL의 예를 통해서 프랑스어 DIL의 언어적 특성과 문체적인 효과를 검토해보자. 다음 장면은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인 제르베즈와 쿠포의 결혼식에서 시누이인 로리의 부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다.

ST1 (서술) Mme Lorilleux, ne se contenant plus, éclata. ① (DIL-로리의 부인) *Elle fichait le camp, elle ! Voilà ce qu'elle faisait ! Est-ce qu'on se moquait du monde ? Elle s'habillait, elle recevait la pluie, et c'était pour s'enfermer chez un marchand de vin ! Non, non, elle en avait assez d'une noce comme ça, elle préférait son chez elle.* (서술) Coupeau et Lorilleux durent barrer la porte. Elle répétait :

② (DD) 《 Ôtez-vous de là ! Je vous dis que je m'en vais ! 》 (441)

TT1 (서술) 이 말을 듣자 로리의 부인은 참다 못해 화를 발각 내었다. ① (DD) 「난 가버릴 테야!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예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외출복을 입고 비를 맞고 결국엔 술집에 갇히게 되다니! 이런 결혼식은 이제 그만뒤요집에 있는 편이 차라리 나을 걸.」(서술) 꾸뽀와 로리의가 문을 막았다.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하였다.

② (DD) 「비켜요! 난 가겠다고 했잖아요!」(58)

프랑스어 원문 ST1에서 (서술)과 그 다음 (서술) 사이에 낀 이탤릭체 구문들 ①은 로리의 부인이 화를 내면서 한 구체적인 ‘말’들이 DIL로 기술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용표지(《 》)도 없고, 인용 도입구 ‘Elle dit que(그녀는 ~라고 말했다)’도 없는 데 왜 이 구문들이 서술이 아니라 DIL일까?

박선희(2011b: 67)에 제시된 아래의 프랑스어 DIL의 내부 지표들을 기반으로 이 구문들을 DIL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 볼 것이다.

〈표 1〉 프랑스어 DIL 내부 지표

범주	지표
문법 (통사)	서술자 시점 인칭대명사 (3인칭대명사 등), 서술자 시점 동사 시제(반과거, 조건법 현재 등), 인물 시점의 지시소 (여기, 지금 등)
문체	구어, 속어, 방언, 은어, 반복, 주저, 양태, 미종결, 도치 등
활자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쌍반점(;), 쉼표, 이탤릭체, 대문자, 굵은 글씨 등

위 <표 1>에 제시된, 프랑스어 DIL 구문 내부에 나타나는 지표들 중 통사 지표에 속하는 3인칭대명사와 동사 시제가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면, 통사 지표의 지시소와 그 밖의 문체와 활자 지표들은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즉, 대명사와 동사 시제로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고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이 인물의 음성을 나타냄으로써 한 구문 내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들리는 다음성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다.

게다가 DIL 밖의 맥락도 해당 구문이 DIL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위 예문에서 DIL 구문이 시작하기 전에 나타난 첫(서술) “Mme Lorileux éclata.”(로리의 부인이 폭발했다.)는 그 다음에 로리와 부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문 밖의 맥락지표 역할을 한다. 위의 ① DIL 구문은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문과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서술하는 경우도, 감탄문이나 의문문 형태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① 구문들의 형태만으로는 이것이 DIL인지 서술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인물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앞의 맥락 지표(서술)로 인해서 ① 구문들 안에 담긴 주관적인 감정이 서술자의 것이 아니라 로리와 부인의 것으로 해석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① DIL 구문 안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 서술자의 음성은 구문들에 나타난 3인칭 대명사 elle(그녀)와 인물의 현재 시제 담화를 과거 시점으로 서술할 때 사용하는 반과거 시제 ‘fichait le camp’(떠나다), ‘faisait’(하다), ‘se moquait de’(비웃다) 등에 담겨있다. 반면에 인물의 음성은 느낌표와 물음표와 같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활자지표뿐만 아니라 ‘ficher le camps’(떠나다, 꺼지다)와 같은 구어 표현과 지시소 ‘Voilà ce que’(바로 이것이), ‘comme ça’(이런)에도 나타나며, 화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양태소 ‘Non, non’(아니, 아니)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이런 내외부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이탤릭체로 표시된 ① 구문들은 서술문이 아니라, 로리와 부인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을 서술자가 인용표지 없이 재현한 DIL 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가 난 인물의 직접적인 음성을 인물 음성 지표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각 문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3인칭대명사와 반과거 시제를 통해서 서술자 자신이 이 담화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2.2. 자유간접화법의 문체적 효과

원문에서 로리의 부인이 화를 내는 양상이 드러나는 ① 구문들이 DIL이 아닌 DD로 재현되었다면, ② (DD)처럼 앞의 (서술)과 줄바꿈을 하고 음성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인용표지(《 》)로 둘러싸인 채 나타났을 것이다. DI로 재현되었다면, ① 구문들 내에 있는 각 문장들이 ‘Elle dit que’(그녀는 ~라고 말했다)라는 인용 도입구를 반복하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① 구문들이 DIL로 재현되면서 이 긴 구문들이 두 개의 서술문 사이에서 어떤 단절이나 결림 없이 연이어 흘러간다. 이처럼 DIL은 인용표지 없이 서술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므로 인물의 ‘말’, ‘생각’, ‘지각’ 등을 서술자가 재현하고 전달하면서도 텍스트의 리듬을 끊거나 분리하지 않는다(Niesse 1974: 126). 또한 서술자가 인물이 사용한 언어를 사실 그대로 노출하면서도, 그 담화가 자신을 통해서 재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용표지를 없앴으로써 서술자는 인물의 발화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Maingueneau 2010: 196).

이처럼 인용표지가 사라진 DIL은 서술자가 인물이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주는 명시적 형태가 아니라, 구문을 읽는 독자 스스로 해당 구문이 서술인지 DIL인지 판단해야 하는 해석적인 형태이며, DIL의 서술자는 인물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인물이 한 ‘말’을 들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DIL을 통해 나타나는 인물의 개성과 감정, 생각들을 서술자는 제시하되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의 몫을 독자에게 돌린다. 여전히 서술자는 3인칭대명사와 동사시제로 그 발화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중개 없이 인물의 음성이 직접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① DIL 구문을 읽는 독자가 로리의 부인이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스스로 감지하고, 그녀가 매우 성마른 성격의 소유자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처럼, 독자는 인물의 개성을 스스로 해석하게 되고, 스스로 해석한 만큼 인물의 생각과 감정에 더 쉽게 동화되는 문체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원문의 프랑스어 DIL 구문을 한국어로 재현한 다양한 방식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DIL이 DIL로 번역되지 않고 다른 기술방식으로 번역될 경우에 어떠한 문체적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3.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3.1.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사례

ST의 DIL이 한국어 번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된 사례를 검토해보자. 아래의 ST2는 DIL 구문들이 평서문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감탄문과 의문문이 포함된 앞의 ST1에 비해서 해당 ①, ②, ③번 구문들이 서술이 아닌 인물의 ‘말’이 재현된 DIL이라는 것을 형태로는 더욱 더 알아보기 힘들다. 아래 ST2에서는 제르베즈가 딸을 낳던 날, 그 집에 모인 산파와 남편 쿠포, 시누이 로리의 부인이 주고 받은 대화가 ①, ②, ③번 DIL로 기술되어 있다. 세 개의 DIL은 각각 산파의 ‘말’과 로리의 부인의 ‘말’ 그리고 쿠포의 ‘말’의 순서로 나타난다.

ST2 (서술) Quand la sage-femme eut siroté son verre, elle s'en alla : ① (산파-DIL) *tout marchait bien, on n'avait plus besoin d'elle ; si la nuit n'était pas bonne, on l'enverrait chercher le lendemain.* (서술) Elle descendait encore l'escalier, que madame Lorilleux la traita de licheuse et de propre à rien. ② (로리의 부인-DIL) *Ça se mettait quatre morceaux de sucre dans son café, ça se faisait donner des quinze francs, pour vous laisser accoucher toute seule.* (서술) Mais Coupeau la défendait ; ③ (쿠포-DIL) *il allongerait les quinze francs de bon cœur ; après tout, ces femmes-là passaient leur jeunesse à étudier, elles avaient raison de demander cher.* (서술) Ensuite, Lorilleux se disputa avec madame Lerat ; (470)

TT1 산파는 짙짙 마시곤 잔을 비운 다음 돌아가 버렸다. ① (산파-DD) 「만사가 순조로우니 이제 내가 있을 필요 없어요 밤에 혹시 경과가 좋지 않거든 내일 부르러 오시면 됩니다」산파가 채 계단도 내려가기 전에 로리의 부인은 그녀가 술꾼이고 아무짝에도 못쓰는 여자라고 헐뜯었다. ② (로리의 부인-DI) *커피에는 설탕을 네 개나 넣었고 산모에게 혼자 분만을 하게 해놓고 또 15프랑이나 달란다고 했다.* 하지만 꾸뵈는 산파를 변호했다. ③ (쿠포-DDL) *난 15프랑을 기쁜 마음으로 지불할 거요 여하튼 저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공부하느라 애를 썼을 테니까 비싸게 받는 것도 당연하지요*이어서 로리와 라 부인의 입씨름이

시작되었다. (81)

TT2 산파는 커피를 훌쩍훌쩍 마신 후 그곳을 떠났다. ① (?- DIL)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더 이상은 산파가 필요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밤에 문제가 생기면 날이 밝는 대로 연락하면 될 터였다(사)가 아직 계단을 다 내려가지도 않았을 때, 로리외는 먹을 것만 축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라고 그녀를 비난했다. ② (로리의 부인-DIL) 커피에 설탕을 네 덩어리나 넣었고(서술) 혼자서 해산하게 내버려둔 값으로 15프랑을 요구한 때문이었다하지만 쿠프는 산파를 옹호했다. ③ (쿠프-DIL) 그는 기꺼이 15프랑을 지불했다. 어쨌거나 그녀와 같은 여성들은 공부하는 데 젊음을 바치지 않았는가(사)라서 비싼 수고비를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다음 로리외는 트라 부인과 언쟁을 벌였다. (1권 168)

원문의 ①, ②, ③번 DIL 구문들에서도 서술자는 3인칭 대명사 ‘elle’(그녀)과 ‘il’(그), 그리고 인물이 말한 현재시제를 반과거로 기술하고, 미래시제를 조건법 현재시제로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한편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로는 구어표현 ‘allonger’((돈을) 주다), 화자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양태소 ‘de bon coeur’(기꺼이, 진심으로), ‘après tout’ (결국, 어쨌든), 지시소 ‘ces femmes-là’(저런 여성들)이 해당하며, 구어형 지시대명사 ‘Ça’(그 작자, 그 놈)는 산파를 향한 로리의 부인의 경멸적인 어조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② (로리의 부인-DIL)에는 특이하게 2인칭 대명사 ‘vous’가 나타나는데, 시누이 로리의 부인이 평소 제르베즈에게 말을 걸 때 대명사 ‘vous’를 사용하므로, 이것은 2인칭 대명사를 통해 로리의 부인의 직접 발화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연속적으로 한 ‘말’이 DI나 DD와 같은 명확한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이처럼 DIL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의 음성을 반영하는 내부 지표들에 더해 DIL 구문들 사이에 끼어있는 (서술)의 의미와 평소 심술궂은 언행을 일삼는 로리의 부인과 아기 아버지 쿠프, 산모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파의 입장을 반영하는 구문 자체의 의미들이 맥락 지표로 더불어 작용하여 해당 구문들이 서술이 아니라 DIL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제 해당 구문들의 한국어 번역 문제를 검토해 보자. 원문의 ①, ②, ③번 DIL 구문들은 TT1에서 각각 DD와 DI, DDL의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원문의 ① (산파-DIL)은 순전히 산모의 현재 상태와 후속 조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문장의 의미 때문에 서술자의 판단이 아니라 산파가 그 집을 떠나며 한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성이 있는 반면에 TT1의 ① (산파-DD)는 인용부호로 산파의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므로 독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② (로리의 부인-DI)도 ‘네 개나 넣었고’, ‘하게 해놓고도’에 산파에 대한 로리의 부인의 불만을 담고서도 ‘~다고 했다’로 끝남으로써 이 구문이 로리외의 ‘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읽기의 재미를 반감시킨다. 쿠포의 발화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③ (쿠포-DDL)도 인용표지 없이 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노출하고 서술자의 존재를 투명화시킴으로써 쿠포의 ‘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TT1의 ①, ②, ③ 번역은 모두 원문의 다음성적인 모호성이 사라진 명시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TT2의 ①, ②, ③ 번역은 인용부호나 인용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한 구어체가 아닌 서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구문들은 DIL이거나 서술문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²⁾ 그런데 일부 구문은 DIL이 아닌 (서술)로 읽히거나, DIL로 읽히는 구문도 음성의 주체가 원문과는 달라져 있다.

우선 ① (?- DIL)의 경우, ‘순조로워 보였고’, ‘필요하지 않았다’, ‘될 터였다’ 등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기를 낳은 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술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해당 장면에서 있는 산모의 가족인 어느 인물의 판단으로 읽힐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문은 산파가 그 집을 떠나면서 한 ‘말’로 해석되는 데, 번역문은 산파의 ‘말’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쿠포나 로리의 부인의 ‘말’이나 ‘생각’을 담은 DIL로 읽힌다. 음성의 주체가 원문과 달라진 것이다. 원문의 ‘on n’avait plus besoin d’elle’에서 대명사 ‘elle(그녀를)’은 산파가 ‘moi(나를)’라고 한 것이 서술자 시점으로 기술되면서 ‘elle’로 바뀌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구문이 원래는 산파의 ‘말’

2) 『목로주집』에 사용된 DIL은 인물의 음성적 지표가 매우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DIL이 한국어 번역본들에서는 DDL로 자주 번역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TT2에서도 DDL 번역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번역본은 저자가 검토한 6개의 한국어 번역본들 중에서 원문의 DIL이 서술과 같은 문장 형태로 자주 번역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번역본이다.

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내지만, 번역문의 ① (?- DIL)은 대명사 ‘elle’을 ‘산파’라는 명사로 객관화시킴으로써 산파의 ‘말’이 아닌 남아 있는 가족의 판단으로 읽히게 한다.

② (로리의 부인-DIL)에는 ‘네 덩어리나 넣었고’에 산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로리의 부인의 ‘말’이 재현된 DIL로 읽히지만, 그 다음의 ② (서술)은 문장 마지막이 ‘요구한 때문이었다’로 끝남으로써 로리의 부인의 ‘말’이 아니라 왜 부인이 산파를 비난하는지 서술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술문으로 읽힌다. ③ (쿠프-DIL) 구문에서 뒷부분은 ‘어쨌거나’, ‘않았는가’, ‘충분히 있었다’에 포함된 주관적 음성이 서술자가 아닌 쿠프의 입장을 반영하므로 누나가 산파를 비난하자 그에 대응해서 산파를 두둔하는 쿠프의 ‘말’로 제대로 읽힌다. 그러나 그 앞 문장 ‘그는 기꺼이 15프랑을 지불했다.’는 원문과 의미가 다르게 번역되었다. 원문의 조건법 현재 ‘il allongerait’는 쿠프가 ‘지불하겠다’로 말한 미래 시제가 서술자 시점으로 기술되면서 (과거 시점에서 미래 시제를 대체하는) 조건법 현재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조건법 현재 시제 자체가 이 부분을 쿠프의 ‘말’로 판단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조건법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번역함으로써 쿠프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것을 ‘돈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구문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였다.

이처럼 프랑스 소설 번역에서 원문의 DIL이 다른 화법이나 서술로 바뀌어 번역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는 데, 번역자로 하여금 DIL 재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들을 검토해보았다.

3.2. 자유간접화법으로의 번역을 방해하는 요인들

3.2.1. 서술과 자유간접화법의 형태적 유사성

우선 DIL과 서술문이 3인칭 대명사와 과거 시점 시제를 같이 사용하므로 DI, DD, DDL과는 다르게 문장의 형식으로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맥을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서술로 잘못 읽을 수 있다. 특히, 평서문 형태로 기술된 ST2는 의문문과 감탄문이 포함된 ST1에 비해 인물의 음성 지표가 많이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서술문과의 구별이 더 어렵다. 따라서 번역자 자신이 DIL을 의식하지 못해서 해당 구문을 서술로 생각하고 번역할 수 있다. 서술로 생각

하고 번역하는 경우, 구문 내부에 있는 인물의 음성 지표를 번역이 살리지 못하면 서술문으로 읽히거나, TT2의 ① DIL처럼 인물의 내면을 반영하기는 하나 음성의 주체가 원문과 달라지게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번역자가 원문의 DIL을 제대로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번역할 때 주변의 서술문과 같은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인물의 음성이 들리도록 재현해야 하는 것도 번역자들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난관이다. 원문의 DIL을 읽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번역할 때도 서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번역해야 하므로 그것을 서술과 다르게 읽히도록 재현하는 일이 쉽지 않다.

3.2.2. 모호한 것을 명시화하려는 번역자의 의도

하지만 DIL이 서술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고 해서 항상 구분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TT1의 번역문에서는 ①, ②, ③ DIL 구문이 각각 DD와 DI, DDL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해당 번역자가 이 구문들이 서술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번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DIL에 대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구문 외부의 맥락 지표와 내부의 지표들이 서술문처럼 생긴 그 문장들이 단순히 서술자의 설명이 아니라 인물들이 한 ‘말’이라는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문에 나타난 DIL의 이러한 모호한 특성 때문에 번역자들은 해당 구문들이 서술이 아니라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명시화하려는 의욕을 갖게 된다. 본인이 원문을 읽으면서 해석해 낸 사실을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알려 주고 싶은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결과, DD와 DI, DDL 화법 형태로 번역되어 목소리의 주체가 명확해짐으로써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구분되거나, 서술자의 음성은 사라지는 번역이 되는 것이다. 원문의 DIL에서는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지만 그것의 번역문들은 두 화자의 음성이 분리되거나 하나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3.2.3. 한국어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인식

문학 번역자들에게 DIL 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도 DIL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한국어 DIL에 대한 관심은 서양언어들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한국어 문법에 DIL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한국 ‘소설 속에서는 자유간접문체가 언어학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이도연 2002: 254)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 소설 속에 나타나는 화자와 인물의 음성 혼합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유순영 1994 ; 윤영옥 1996). 그러나 언어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두 화자의 음성을 교묘하게 혼합하여 들리게 하는지에 대한 언어적 규명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의 특성 상 DIL이 나타나기 어렵다거나, 아직까지 한국어에서는 DIL의 형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김천혜 1990)에 대해서는 서양언어의 DIL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인 3인칭 대명사와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한국어 DIL의 형태를 규명하려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인칭대명사와 동사 시제 사용이 규칙성을 갖고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서양언어와는 다르게 한국어에서는, 특히, 구어에서는 대명사가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 시제 사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 시점의 사실을 기술할 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모두 사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양언어의 언어적 특성을 한국어에 그대로 대입하여 DIL을 정의하게 되면, 한국어의 특성 상 DIL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서양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에 똑같은 언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DIL의 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인칭대명사와 과거시제라는 언어적인 표피가 아니라,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경계 없이 한 번에 섞여 나타나는 모호한 음성 혼합적 특성이며, 이것이 DIL의 본질이다. 서양어 DIL의 언어적 특성을 적용하여 한국어에서 DIL을 찾기보다는 한국어에, 특히 한국 소설에, 이런 모호한 다음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구문들을 발췌하여 그런 구문들의 언어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이런 다중화자의 음성 혼합 현상은 18세기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김현주 2002). 문어 텍스트에서는 근대 언문일치 운동 이후에 발간된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서술자와 화자의 음성이 한꺼번에 결합된 구문들이 나타나며 이후 한국 작가들에 의해서 이런 구문들은 줄곧 사용되어 왔다.³⁾

3) 이광수의 『무정』(1917) 이후로 현대 소설까지 한국 소설에 나타난 DIL의 여러 예는 전성기(2005)가 정리한 바 있다. 프랑스어로 기술된 논문이지만 DIL 구문의 경우, 저자가 밑줄로 표시하였으므로 프랑스어를 모르는 연구자들도 한국 소설 텍스트에 DIL 구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사용해 온 것일 뿐 한국어에 DIL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3.2.4. 자유간접화법의 문체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원문의 DIL이 다른 화법으로 번역될 경우 일어나는 문체적 상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사실 앞의 번역 예에서 보았듯이 원문의 DIL을 DI나 DD나 DDL로 번역한다고 해서 의미가 오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물이 한 ‘말’을 다른 화법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의미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 번역의 문제이며 번역본의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용 텍스트를 번역할 때도 의미를 제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그 번역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번역학에서는 상식이 되었다. 텍스트의 기능에 알맞은 글쓰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의 기능을 고려한 번역은 문체를 번역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소설텍스트에서 인물의 ‘말’을 기술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 방식에 따라 서술자가 인물의 ‘말’을 전달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서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그 작품이 다양한 문체로 기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문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을 서술이나 DI, DD, DDL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DIL의 방식으로도 전달한다면, 번역본의 서술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문체의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DIL이 아닌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서술자는 해당 구문이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거나(DD) 자신의 목소리로 덮어서 알려주거나(서술 또는 DI), 인물의 음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는 방식(DDL)으로 알려줌으로써 해당 음성의 주체가 인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반면에, DIL의 서술자는 자신과 인물의 음성을 경계 짓지 않고 동시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서술자의 것인지 인물의 것인지 DIL을 읽는 독자는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아니라 음성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찾는 능동적 독자로 변신하여 구문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과 감정 등을 스스로 해석하고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런 역할이 부여되도록 번역자들은 독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2.5. 한국어 자유간접화법의 언어 특성에 대한 연구 부족

하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번역자가 원문에서 DIL을 발견하여 그것을 한국어로 재현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형태적 특성이 명확한 DI와 DD의 경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미 교육 받았기 때문에 외국어 DI와 DD를 한국어로 재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DDL의 번역도 DD의 인용구 안에 들어갈 구어체 문장을 그대로 기술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 DIL은 아직까지 그 언어적 특성이 국어학자들에 의해서 규명된 바 없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모호한 음성 혼합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어 DIL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래 표에 제시된 DIL 구문의 내부 지표를 종류별로 구분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박선희 2011b: 70), 국어학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표 2〉 한국어 DIL 내부 지표

범주	지표
문법 (통사)	서술자 시점의 3인칭 대명사 사용 혹은 생략, 동사 시제는 서술자 시점의 과거 시제 또는 인물 시점의 현재 시제 둘 다 가능, 서술자 시점의 (인용 표지 없는) 문어형 종결어미 인물 시점의 지시소,
문체	구어, 방언, 은어, 반복, 주저함, 양태, 미종결문, 단문, 경어법
활자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쉼표, 이탤릭체, 대문자, 굵은 글씨

위 <표 2>에 제시된 한국어 DIL의 지표들 중 프랑스어 DIL 지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사 지표 부분이다. 프랑스어 DIL에서는 3인칭 대명사와 과거 시점의 시제가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것들은 생략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 DIL에서는 3인칭 대명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략되는 것도 가능하며, 동사 시제도 과거 시제로 기술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제로도 기술되기도 한다. 이 경우, 한국어 DIL 구문이 3인칭 대명사와 과거 시제로 기술되면 서술자의 음성 지표가 되고, 현재 시제로 기술되거나, 대명사가 생략되면 구어 특성이 강화되므로 인물 음성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DIL 번역에

서 대명사와 동사 시제는 번역자의 선택에 따라서 서술자 음성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인물 음성 지표로 사용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DIL에서 언제나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생략이 불가능한 문어형 종결어미이며, 한국어에는 문장의 유형에 따라 서술, 의문, 감탄, 추측, 청유 등 문형에 따라 문어형 종결어미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것은 프랑스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이다. 프랑스어에서 3인칭대명사와 과거 시점 시제가 서술자의 음성을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면, 한국어에서는 인용표지 없이 나타나는 문어형 종결어미가 서술자의 음성을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박선희 2011b: 70-72 참고). 문학 텍스트에서 인물의 ‘말’이 DIL로 나타나는 것은 인물의 구어가 서술자의 문어로 기술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DIL에서 문장의 끝은 문어형 종결어미로 기술되어야 한다. 한국어 DIL에서 지시소나 문체, 활자 지표와 같은 그 밖의 다른 지표들은 프랑스어 DIL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프랑스어 DIL이 한국어 DIL로 적절하게 번역된 사례를 통해서 위의 한국어 지표들이 어떻게 한국어 DIL 구문에서 서술자의 음성과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혼합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4. 한국어 자유간접화법으로의 번역 전략

4.1.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모호하게 혼합하기

아래 예문은 앞에서 소개된 ST1의 번역문이다. ST1의 DIL (로리의 부인의 ‘말’)이 TT2에서 문장 ①은 구어체인 DDL로 번역되었고, 그 다음 문장들 ②는 DIL로 번역되어 있다.

TT2 (서술) 그러자 그때까지 억지로 참고 있던 로리의 부인이 마침내 폭 발하고 말았다. ① (로리의 부인-DDL) 당장 집으로 가버리고 말겠어! ② (로리의 부인-DIL) 그게 그녀가 하려는 것이었다. **다들 지금 장난하는 건 가? 이렇게 술집에나 간혀 있으려고 잔뜩 신경 써서 차려입고 한바탕 비 까지 맞은 줄 아는가 말이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런 하객 놀음 따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는 게 훨씬 더 나를 터뜨렸다(서술) 쿠포와 로리외는 문을 가로막아야 했
 다.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로리외 부인-DD) “당장 비키지들 못해! 난 가겠다니까!” (1권 120)

그렇다면 왜 ② (로리외 부인-DIL)이 서술문이 아니라 DIL로 번역되었다는
 것인가? 위의 한국어 번역문에서 인물의 ‘말’을 DIL로 재현한 기법을 하나씩
 탐색해 보겠다.

우선 이 구문들에는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한 문장 안에 혼합되어 있다.
 3인칭 대명사 ‘그녀’와 각 문장을 종결하는 문어형 어미들(서술형 ‘~다’와 의문
 형 ‘~건가?’), 그리고 ‘것이였다’, ‘없었다’, ‘터뜨렸다’ 등의 과거 시제는 서술자의
 음성을 담고 있다. 반면에 지시소 ‘지금’, ‘이렇게’, ‘이런’은 인물 시점의 지시
 소로 기술되었고, 양태소 ‘잔뜩’, ‘절대로’, ‘차라리’, ‘훨씬’ 등과 ‘비까지’, ‘놀
 음 따위는’, ‘나를 터뜨렸다’와 같은 조사와 어미에는 짜증이 난 인물의 주관적인
 음성이 담겨 있다. ‘다들’, ‘아니’, ‘놀음’, ‘돌아가는 게’와 같은 구어 표현도 해
 당 구문이 서술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라는 해석을 도와주는 지표로 작용
 한다. 따라서 ② (로리외 부인-DIL)의 구문들은 문어형 종결어미로 서술자가
 각 문장을 제어하고 있고, 가끔 나타나는 3인칭 대명사와 과거 시제가 서술자
 의 존재를 추가로 제시하면서도, 인물의 음성을 알리는 지표들이 구문들의 중
 간 중간에서 산발적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
 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 혼합은 두 발화 주체의 음성적인 경계가 명
 확하지 않도록 호모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즉 원문과 마찬가지로 번역문의 DIL
 에서도 다음성적 모호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TT2에서 ② (로리외 부인
 -DIL)의 각 문장들 내부에 혼합된 두 타자의 음성은 서로 얽혀져 있어서 명확
 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이 구문들이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표
 지도 없다. 게다가 DIL 구문 앞뒤에 출현하는 서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되
 어 있기 때문에 이 구문들을 읽는 독자 스스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동시에
 들음으로써 이 구문들이 서술이 아니라 로리외 부인의 ‘말’이라는 것을 해석해
 야 한다.

DIL은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그저 동시에 들리게 할 뿐이므로 독자 스스로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모호한 해석적인 형태이지만, DD나 DI로의 번역은 두 화자의 음성을 구분하여 인물이 한 ‘말’을 서술자가 전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DDL은 등장인물의 발화를 전면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서술자의 존재를 투명화시키는, 역시 모호성이 사라진 명시적인 형태이다. 인용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서술자가 그 발화를 제어하는 DIL과는 다르다.

이런 DIL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DIL 번역을 제안한다면,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ST2의 DIL 구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ST2의 제안 번역]

(서술) 산파는 훌쩍훌쩍 마시더니 떠났다. ① (산파-DIL) **아무 문제없으니, 이젠 자신이 필요 없었다. 밤에 상태가 안 좋으면 다음날 부르면 된다.** 산파가 아직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데도 로리의 부인은 그녀를 술꾼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② (로리의 부인-DIL) **커피에 설탕을 네 조각이나 넣고 자네 혼자 애 낳게 해놓고선 15프랑을 쓰게 한다.** (서술) 하지만 쿠폰은 그녀를 옹호했다. ③ (쿠폰-DIL) **기꺼이 15프랑 내겠다. 어찌됐건 저런 여자들은 공부하는데 젊음을 보냈으니 비싸게 요구할 만도 했다.**(서술) 그러자 로리외는 르라 부인과 서로 언쟁을 벌였다.

위 번역에서 DIL로 기술된 ①, ②, ③ 구문은 각 문장 끝에 사용된 문어형 종결어미들과 ① ‘없었다’와 ③ ‘만도 했다’의 과거 시제가 서술자의 음성을 담고 있다. 또한 ①에 나타난 대명사 ‘자신’은 전달화법에서 사용되는 대명사이므로 서술자가 타자의 담화를 전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반면에 인물의 음성은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이 담고 있다. 현재 시제로 종결된 ① ‘부르면 된다’와 ② ‘쓰게 한다’와 미래 시제 ③의 ‘내겠다’는 인물의 발화 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무’, ‘네 조각이나’, ‘기꺼이’, ‘어찌됐건’, ‘만도 했다’에는 화자인 인물들의 주관적인 목소리가 들어 있다. 지시소 ‘이젠’, ‘저런’도 인물의 직접 발화를 반영한다. 게다가 ②의 ‘해놓고선’의 축약형 어미와 ③ ‘15프랑 내겠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된 것도 구어성을 강화하는 특성이므로⁴⁾ 이 구문이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특히 원문

4) 이 부분에서 축약형 어미 ‘해놓고선’이 비축약형 어미 ‘해놓고서는’으로 기술되거나,

의 ② 문장에서 로리와 부인이 사용한 격식체 2인칭 대명사 ‘vous’는 로리와 부인이 올케인 제르베즈를 지칭한 것이므로 번역문에서는 ‘자네’로 옮겨 로리와 부인의 목소리가 돌출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구문 내부 곳곳에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서로 얽히도록 장치하면, 앞뒤에 출현하는 서술문과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직접 인용 부호나 ‘다고’ 등의 인용어미가 없어도, 서술이 아닌 인물들의 ‘말’로 해석되는 DIL 구문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DIL을 번역한 한국어 번역 사례들을 통하여 DIL이 아닌 다른 화법이나 서술로 번역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체적 상실에 대해 논의하였고, 한국어로는 DIL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원문의 DIL을 DIL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의 작가가 사용한 문체의 다양성을 번역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DIL을 DIL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작가가 사용한 다양한 기술 방식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문에 혼합된 여러 타자의 목소리 수를 줄이고 단조롭게 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해석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DIL의 해석적인 형태는 맥락에 의해서 독자 스스로 음성의 주체를 감지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술자가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 인물의 개성과 감정, 판단을 해석하는 적극적인 독자가 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나타난 프랑스어 DIL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한하여 논의가 전개되었다. 아직까지 한국어 DIL 번역 연구는

‘15프랑 내겠다’에서 목적격 조사 ‘을’ 넣어 ‘15프랑을 내겠다’라고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맥락과 다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물의 ‘말’로 읽힌다. 단지 축약형 어미가 사용되거나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면, DIL 구문에 구어성 지표가 더 추가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물 음성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된다. DIL 구문에 인물 음성 지표를 얼마나 추가할 지는 ST 구문의 상황에 따라서 번역자가 판단할 영역이다. 위 예문은 문어형 종결 어미 구문에 인물의 음성 지표를 혼합함으로써 DIL 구문을 만드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인물의 음성 지표를 많이 추가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많은 연구 주제가 남아있는 미개척 분야이다. 1인칭 소설에서의 DIL 번역이나 한국어 소설에 나타난 DIL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이와 다른 특성과 양상을 나타낼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천혜 (1990) 『소설 구조의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현주 (2002) 「관소리의 多聲性,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사회학적 배경」, 『관소리연구』 13: 127-49.
- 박선희 (2011a)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이론 비교 고찰」, 『통번역학연구』 14(2): 137-58.
- 박선희 (2011b) 「자유간접화법의 불한 번역에서 다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3): 55-82.
- 박선희 (2012) 「Madame Bovary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 번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2015) 「문학 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한국번역학회 2015 가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고려대학교 2015. 10.17. 134-40.
- 유순영 (1994) 「서술의 변화연구 1인칭 소설을 중심으로」, 논문집 3: 219-39.
- 윤영옥 (1996)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에 관하여」, 『현대소설연구』 5: 165-87.
- 이도연 (2002) 「이태준 단편 연구-『토끼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45: 245-74.
- 전성기 (2005) 「Le Style Indirect Libre en Coréen」, 『프랑스어문교육』 20: 243-77.
- 정하연 (2015) 「내면서사 번역의 가능성: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3): 247-71.
- 한미애 (2011) 「서술의 다양성을 번역하기: 『부랑일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

구』 12(1): 263-83.

Bally, Charles (1912) 'Le Style Indirect Libre en Français Moderne I',
Germanisch-Romanische Monatsschrift IV: 549-56.

Bally, Charles (1912) 'Le Style Indirect Libre en Français Moderne II',
Germanisch-Romanische Monatsschrift IV: 597-607.

Ducrot, Oswald (1980) 'Analyses Pragmatiques', *Communications* 32: 11-60.

Fludernik, Monika (1993) *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Fiction :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peech and Consciousness*,
London & New York: Routledge.

Lips, Marguerite (1926) *Le Style Indirect Libre*, Paris: Payot.

Maingueneau, Dominique (2010) *Manuel de Linguistique pour les Textes Littéraires*, Paris: Armand Colin.

Niesse, Robert J. (1974) 'Remarks on the "Style Indirect Libre" in
"L assommoir"', *Nineteenth-Century French Studies* 3(Fall-Winter
1974-1975): 124-35.

- *L Assommoir* 원본과 번역본

Zola, Émile (1961) *L Assommoir*, in *Les Rougon-Macquart* II, Paris: Éditions
Gallimard.

TT1 에밀 졸라, 김인환 역 (1975) 『목로주점, 나나』, 서울: 동서문화사

TT2 에밀 졸라, 박명숙 역 (2011) 『목로주점』, 서울: 문학동네

[Abstract]

Free Indirect Discourse in Literary Translation, How Should It Be Translated into Korean?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how the free indirect discourse (FID) of a foreign language can be translated into Korean FID in a literary text. The key point of FID translation is to reproduce multiple voices of the narrator and the character(s) in the passage of the source text without dissevering or homogenizing them. The polyphonic ambiguity of the FID in the original should be maintained in the translation. However, it is often the case that FID is translated through such methods as direct discourse, indirect discourse, free direct discourse, or narration. In the process, the mixed voices of the narrator and character(s) are divided or simplif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reasons why Korean translators cannot easily translate FID and propose how, for example, French FID can be translated into Korean using the linguistic indices of FID. Émile Zola's novel, *Assommoir*, and its Korean translations are presented as illustrations of this process.

▶ Key Words: free indirect discourse, polyphony, stylistic effect,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ed style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시간강사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수용,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5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